

음식물이 체해 고통이 수반될 때는?

한방의 궁중비급환의 효력

인간이 생활하는 과정에는 예상치 못하는 일신상의 異常이 발생하기도 한다. 크게는 중대사가 생기기도 하지만 보통 가정에서 구급처치 할 수 있는 증세도 음식물이 체해서 배가 아프거나 혹 위경련같이 구토증세가 나타나며 고통을 수반하는 등의 사소한 일이 생긴다.

반면 체해서 위에 부담받은 것을 가볍게 여겨 저절로 나을것으로 여겼다가 즉시 해소되지 않으면 慢性胃炎 같은 증상을 유발시키는 경우가 있다.

구급상비로 사용할 수 있는 「漢方의 生藥」 丸藥을 비치해 둠으로써 비상시 간단하게 손쉽게 처리할 수 있는 것이다. 漢方에서의 丸藥은 여러 종류로도 복용할 수 있어 간편하고 특히 換節期 때 食傷時에 많이 활용되고 있다.

대충 丸藥을 두종류로만 예를 들자면 위에서 지적한 소화제인 宮中秘急丸과 심장및 신경에 자극을 받아 쇼크현상이 발생하였을 때 사용하며 漢方의 灵藥인 牛黃清心丸을 들 수 있다. 음식을 먹고 체했을



權寧勲

〈영세당한의원 원장〉

때 어린이의 경우는 대략 몸에 열이 나며 배가 뜨겁고 아픈것이 보통이나 성인은 손발까지 차고 위 및 배 부위가 차며 통증을 느끼게 된다. 이는 평상시 신경소모가 많은 까닭에 혈액순환이 순탄치 못한데서 나타나는 것이다.

이러한 증세에서는 으레 손쉬운 소화제를 이용하겠으나 漢方에서는 전통적으로 사용하는 热性 약과 芳香性이 많이 함유되어 있고 健胃作用 및 식욕촉진도 뛰는 漢方救急常備 소화제인 宮中秘急丸을 활용하게 된다. 이것은 옛날 宮中에서 사용하던 것이라서 聖藥이라고 까지 칭한것이다. 牛黃清心丸은 한약중에서 最眞貴 약제로 인정받는 麝香(사향)이라는 국노루에서 생산된 것과 牛黃이라는 소 쓸개에서 생산되는 이 두가지가 主宗이 되어 그밖에 몇가지 약종류로 조화되어 灵藥에 가깝도록 인정받는 것이다. 그러한 까닭에서인지 해외여행을 다녀올 때엔 으레 牛黃清心丸을 몇개 정도는 소지하는 예가 많다. 그러나 牛黃清心丸은 사실상 우리나라 제품이 외국산보다 믿을만한 良質인 것이다.

비교적 漢方에 대한 전문적 교육기관의 전당으로 5個漢醫科大學이 있으며 각 漢方大學病院의 臨床研究를 살펴 보더라도 날로 발전하므로 타국보다는 우리나라 漢方이 宗主國으로 느껴지기 때문이다. ■